

# 모바일 투표 도입 계파간 신경전

## 민주 전대 지도부 경선룰 어떻게 전대선 '효협' 총선에선 '부작용' 속출 일반 당원 참여 폭 확대도 '갑론을박'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당권의 향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별써부터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경선 방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경선 시행세칙으로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소 투표 및 대의원 선거인단 현장 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1·15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은 '대의원 30%+당원·대의원 70%'의 룰에 따라 치러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6·9 전당대회에서의 모바일 투표 도입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4·11 총선에서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과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6월 전당대회에는 도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23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전당대회에서는 시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총선과 달리 전당대회는 사실상 전국적 선거

라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의 폐해가 적다며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내 주류층에서는 모바일 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전당대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로 올라오는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차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고 일반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원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도 논란거리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의 존립 근거와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일반 당원의 참여가 최소한 30% 수준은 돼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국민 참여를 30~40% 정도 배려한다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당원이 없는 민주통합당 내부 시민사회 진영과 당내 조

직보다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내 갈등 없이 경선 룰을 정하는 것도 민주통합당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 패배에 이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놓고 내부적 갈등 양상이 벌어진다면 12월 대선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경선 룰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 보다 지혜롭게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비박 잠룡들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카드로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굳건한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 수 있을지, 또 향후 어떤 전략을 구사해 나갈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vs 수도권 후보론 = 박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다소 흔들렸던 대세론도 다시 확고해졌다. 5·15 전당대회를 통해 친박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5월 전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동뉴스

## 민주 원내대표 후보군 7~8명 압축

이낙연·박기춘·전병헌·신계륜·박영선·신학용·김재윤·노영민 등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경쟁구도가 드러나고 있다. 23일 현재 출마가 점쳐지는 후보는 7~8명 정도. 당초 15명까지 거론되다가 교통신리가 됐다. 이날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이낙연·박기춘·전병헌 의원 등 3명이다.

담양·영광·함평·장성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호남지역 대표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5차례에 걸쳐 대변인을 맡은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전 의원은 수도권 의원으로서 전국 최대 의석이 있는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박지원 최고위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각오다.

수도권 4선인 신계륜 당선자도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진다. 신 당선자는 당내 최대 세력인 친노(친

노무현) 진영과 486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역시 수도권 3선인 박영선 의원도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대중적 지지도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친손(친신학규)계에서는 신학용 의원(3선·인천 계양구갑)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만한 성격으로 의원들 사이에 평이 좋고 인천지역 당선자 6명이 합의로 추대

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김재윤 의원(3선·제주 서귀포)은 '40대 원내대표론'을 캐치프레이즈로, 노영민 의원(3선·충북 청주 흥덕구)은 충청 지역 의원들의 지지 속에 각각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여기에 광양·구례를 지역구로 둔 3선의 유운근 의원이 출마를 검토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유 의원이 출마할 경우 호남권의 표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절친한 박영선·전병헌·노영민 의원 등과 24일까지 논의를 한 뒤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3일 공고, 24~26일 후보자 등록, 27일 기호추첨을 거쳐 내달 4일 경선을 실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대세론 맞설 수도권 후보론 부각될까

박근혜 대세론 맞설 수도권 후보론 부각될까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체제에 맞서 김문수 경기지사가 전날 비박(비박근혜)계 잠룡 중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다른 비박 인사인 정몽준 전 대표와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이 출사표를 준비 중이고, 당내 기반이 취약한 장외주자 정운찬 전 총리는 새누리당 경선 출마와 독자노선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박 잠룡들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카드로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굳건한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 수 있을지, 또 향후 어떤 전략을 구사해 나갈지에 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세론 vs 수도권 후보론 = 박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다소 흔들렸던 대세론도 다시 확고해졌다. 5·15 전당대회를 통해 친박 지도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5월 전

## 민주 당권-대권주자 연대구도는 손학규·박지원 연대 가능성 높고 문재인·김두관, 이해찬 밀어주기

민주통합당의 당권주자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권주자들과의 연대 구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대표는 7~8월 실시되는 대선주자 경선을 책임지게 돼 대선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23일 현재까지 거론되는 당권 후보군은 박지원 최고위원, 이해찬 전 국무총리, 김한길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상호 당선자 전 의원 등이다. 우선, 친노(친노무현)계인 문재인 총임고문과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 전 총리에게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는 비노 진영에서는 연대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지권 안팎에서는 비노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과 호남지역의 좌장격인 박지원 최고위원이 손을 잡을 것이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손 상임고문과 박 최고위원이 오찬을 한 사실

까지 알려지면서 이들의 연대 가능성이 실력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는 정동영계였으나 현재는 '무(無)계파' 인사로 분류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노-비노 대표수사 아닌 계파를 아우르는 인사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출마할 것으로 보여 특정 대권주자와 연대할 가능성은 작다.

이상호 전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추대한 486진영의 '진보행동'은 독자노선을 걸고 12월 대선에서도 독자 출마할 것으로 보여 특정 대권주자와 연대할 가능성은 작다.

## 박근혜 전국 민생행보 다음주 광주·전남 방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부터 4·11 총선 후 전국 민생행보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강인도를 첫 방문, 새누리당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강원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하는데 이어 원주 재래시장,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릉 노인종합복지관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25일 충청을 찾는 것을 비롯해 26일 경기·인천, 27일 부산·경남을 각각 방문한다.

또 주요 사업현장과 재래시장 등 민생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번 전국 민생 행보는 2주간의 일정인데, 광주·전남지역 방문 등 다음주 일정은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민생 행보는 공약실천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국민 지지에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한 차원인 만큼 민생 현장 방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062)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불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